

삼성, 모바일·가전제품 경쟁력 강화... “당일 배송·설치”

낮 12시 이전 구매시 ‘오늘보장’ TV·세탁기·냉장고 등 수요 전망 고객 서비스 통해 판매 반등 모색



삼성전자로지텍 전문 설치팀과 모델이 삼성전자 화성 물류센터TC에서 ‘오늘보장’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국내 최초로 모바일 기기부터 가전까지 당일배송을 시작하며 생활가전 판매량 반등을 꾀한다. 최근 삼성전자는 중저가 TV를 중심으로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에 밀리면서 프리미엄 생활가전을 내세우며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이번 생활가전 매출의 선방에도 경쟁사인 LG 전자와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고객 서비스를 통한 시장 선점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14일부터 가전에서 모바일까지 구매 제품을 당일 배송·설치하는 ‘오늘보장’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늘보장 서비스는 삼성닷컴에서 낮 12시 이전에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TV, 냉장고, 세탁기 등 사전 공사가 필요 없는 가전제품은 삼성전자로지텍을 통해 10만원에 당일 배송·설치할 수 있다. 제외 품목은 정수기, 전기레인지, 인덕션, 에어컨, 식기세척기, 오븐 등이다.

스마트폰, 웨어러블 등 설치가 필요

없는 50만원 이하 모바일 제품도 별도 배송 업체를 통해 배송비 5000원에 당일 배송된다. 다만 스마트폰 갤럭시 S/Z 시리즈, PC, 프린터, 갤럭시 링 등은 ‘오늘보장’ 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오늘보장 서비스는 우선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하며 향후 광

역시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고장이나 파손으로 음식물 변질이 우려되는 냉장고 ▲시청이 필요한 TV ▲신속한 통화가 필요한 스마트폰 등의 서비스 수요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갑자기 고장이 나는 냉장고, TV 등에 대해 당일 배송 서비스 수요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7월 일부 섬 지역에 갤럭시 Z 폴드6·Z 플립6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드론 배송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운영한 바 있으며 소비자가 직접 제품 수령과 설치 시간을 지정하는 ‘시간 맞춤 설치 서비스’ 등도 도입했다.

이는 최근 삼성전자의 가전 실적은 선방했지만 경쟁사인 LG전자와 벌어진 격차를 역전시키기 위한 전략 가운데 하나로 풀이된다.

3분기 삼성전자 VD(영상디스플레이)·생활가전 사업부 매출은 전 분기

대비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개선됐다. 3분기 영업이익은 5300억원으로 전 분기와 비교하면 8.2%, 1년 전과 비교해 39.5% 상승했다. VD는 네오(Neo) QLED 등 전략 제품 판매에 주력했고 서비스 사업 매출 확대가 주효했다. 생활가전은 비스포크 AI 신제품 중심으로 프리미엄 제품 판매를 이끌었다.

하지만 결국 구독서비스를 내세운 LG전자가 가전 시장에서 앞지르며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1.5배 가량 벌렸다.

이밖에도 로봇청소기와 중저가 TV를 중심으로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가전 시장에서 돌파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QLED, 대형 TV 등 전략 제품 수요는 지속적으로 성장중”이라면서도 “엔트리급 중심 수요가 늘어나면서 중저가 TV 시장 비중이 확대되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SK실트론, 美 웨이퍼 공장 투자자금 확보

美 에너지부 7700억 대출지원 승인 내년 200mm SiC 웨이퍼 양산 예정

SK실트론 미국 법인 SK실트론CSS가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미국 실리콘 카바이드(SiC) 웨이퍼 공장 투자와 관련해 7700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을 받는다.

SK실트론CSS는 지난 5일 미국 에너지부와 ATVM 대출 프로그램(Advanced Technology Vehicles Manufacturing Loan Program)의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의 대출 프로그램 사무소(LPO)는 지난 2월 SK실트론CSS에 5억4400만달러의 대출을 조건부 승인

했다. 이번 본계약은 SK실트론이 특정 기술과 법률, 환경, 재정 조건 등 세부 계약 조건을 충족함으로써 성사됐다. 대출 지원금은 원금 4억8150만달러, 이자 6250만달러 등이다.

이번 대출 지원은 미국 정부의 자국내 전기차 제조 기반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SK실트론CSS는 SK실트론의 미국 자회사로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에 필요한 SiC(탄화규소) 웨이퍼를 생산한다. SK실트론은 미국 미시간주 베이시티(Bay City)와 구미2공장에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한미 듀얼(Dual) 생산 체계를 운영 중이다.

SK실트론CSS는 차세대 전력반도체

의 핵심 소재인 SiC 웨이퍼를 연구개발·제조·공급하는 기업이다. SiC 웨이퍼는 전기차용 전력 반도체의 핵심 소재로 주목 받고 있다. SiC 웨이퍼를 사용해 반도체를 만들면 기존 실리콘 웨이퍼 대비 약 10배의 고전압과 약 3배의 고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이에 충전 시간이 더 빠르고 주행 거리가 최대 10% 더 길어질 수 있다.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발전용 전력반도체의 핵심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SK실트론은 경북 구미와 미국 ‘듀얼’ 생산 체계를 가동해 차세대 제품인 200mm SiC 웨이퍼를 2025년부터 본격 양산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

HMM, 3분기 영업이익 1.5조... 1827% 폭증 (전년동기대비)

초대형선 등 수익성 위주 영업 주효

HMM이 올해 3분기 신규항로 개설과 초대형선 투입 등 수익성 위주의 영업 강화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HMM은 연결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1조461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27.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조5520억원, 당기순이익은 1조738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0%, 1722.0% 상승했다.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은 8조5453억원, 영업이익 2조5127억원, 당기순이익 2조8843억원이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홍해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지난해 3분기 평균 986포인트였던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올해 3분기 평균 3082포인트

트로 상승하며 매출 및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또 신규서비스(아시아~멕시코) 개설, 1만3000TEU(1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 분량)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투입, 고채산 화물 증가 등 수익성 위주의 영업을 강화한 것도 실적 상승에 도움을 줬다.

4분기는 전통적인 비수기 진입으로 전 반적 상황 약세가 예상된다. 다만 미국 동안 항만 파업 영향 및 스케줄 지연에 따른 공급 불안정은 지속될 전망이다.

HMM은 내년 2월 ‘프리미어 얼라이언스+MSC’ 신규 협력으로 항로·지역별 수급 변화에 맞춰 최적의 운송서비스를 구축하고, 2030 중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사업 다각화 및 신규 수익 창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

LG엔솔, ‘파트너스 데이’ 개최 김동명 사장 “파트너사 아낌없이 지원”

파트너사 경쟁력 강화 집중



LG에너지솔루션 CEO 김동명 사장이 2024 파트너스데이 행사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이 파트너사와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상호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 및 미래 준비를 위한 ‘2024 파트너스 데이’를 1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광주 곤지암 리조트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EMPOWER EVERY POSSIBILITY”를 주제로 개최됐으며 협력사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파트너사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올 한 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잇따른 수주에 성공하며 대체할 수 없는 고객가치를 증명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무궁무진한 사업의 기회를 현

실로 만들기 위해 글로벌 기준을 뛰어넘는 높은 기술력과, 품질, 가격 경쟁력이 필요하며, LG에너지솔루션은 이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찬란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차현정 기자 hyeon@

SK케미칼 ‘갤럭시 어워즈’ 대상 지속가능 경영 성과 입증

SK케미칼이 ESG 평가 기관으로부터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성과를 꾸준히 인정받고 있다.

SK케미칼은 ‘2024 갤럭시 어워즈’에서 ‘2023 지속가능 경영보고서’가 대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갤럭시 어워즈’는 미국 커뮤니케이션 전문 기관인 머콤(MerComm) 사가 주관하는 글로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경연 대회다.

이번 경연대회에서 SK케미칼은 연례 보고서-온라인(Online Annual Report) 지속가능경영보고서부문에 대상에 선정됐다.

지난 7월 온라인으로 발간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각 영역별로 한해 동안의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 중장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아이오닉 9 내장 티저 이미지. /현대차

현대차, ‘아이오닉9’ 내장 티저 이미지 공개

현대자동차가 브랜드 최초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이오닉9의 디자인을 엿볼 수 있는 실내 공간을 공개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9의 내장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이오닉9은 현대차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라인업을 확장하는 모델로 이번에 공개된 내장 티저 이미지는 에어로스타틱 실루엣 안에 펼쳐진 실내 공간의 모습이 담겨 있다.

아이오닉 9의 실내는 여유로운 공간을 바탕으로 타원 모양의 다양한 디자인 요소들을 적용해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아늑하고 유연한 라운지를 연상케 한다.

특히 아이오닉 9은 동급 최고 수준의 휠베이스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3월까지 확장된 플랫폼 플로우를 통해 넓은 실내 공간을 갖추고 있다.

/양성운 기자